

호스피스제도화에 함께하기를...

이 승 찬 신부

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구현실장 ·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지도신부



우 리 모두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. 그러나 이런 기대나 바람과는 달리 실제의 모습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 듯 싶습니다. 처음에 가졌던 모습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변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. 왜 처음의 좋은 마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좋아지지 않고 어찌면 좋지만은 않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을까요?

우리 삶의 모습은 좋은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또한 필요합니다. 세상 일이 내용과 형식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마음을 오래 담을 그릇, 즉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. 신앙 안에서 보면 이런 형식을 '전례'라고 할 수 있고, 행정으로 보면 '제도'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우리는 일반적으로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내용이 없이 형식만이 남아 있다면 빈껍데기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지속시킬 수 없다면 단지 이상이나 주장으로 끝나고 말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지난 6월 한국 가톨릭호스피스협회에 커다란 경사가 있었습니다. 협회가 법인으로 등록되었다는 소식입니다. 호스피스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낯설

었던 시기부터 명실공이 호스피스가 사회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성의를 보였던 협회가 공적인 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.

이와 아울러 이제는 협회에 있는 모든 기관이 국가의 제도화 사업에 좀 더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합니다.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요구되고, 임종 전 삶의 질을 높이는 완화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이제는 호스피스제도화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. 어렵잡아 40여 년 동안 호스피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적으로 활동한 협회의 기관들이 이제는 사회전반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.

호스피스·완화의료의 제도화가 처음부터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. 아니 너무 미비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. 인력이나 시설, 장비 기준이 지나치게 행정적이고 산술적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나 국가적인 관심이 한층 고조된 이 때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, 호스피스가 더욱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협회와 산하기관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면 분명 이 시간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마음을 담을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와 산하기관들이 협력하여 호스피스제도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.